

## 학교 에어컨 전기료 없어 못킨다

### 광주 수백억 들여 설치 불구 가동 꺼려

#### “교육용 전기료 대폭 인하를”

‘찜통교실’ ‘동태교실’을 없애기 위해 광주시교육청이 국고 등 막대한 예산을 들여 초·중·고에 냉난방기를 설치했으나 정작 전기요금이 없어 냉난방기를 가동하지 못할 처지다.

이에 따라 현재 한전이 산업용 전기요금과 거의 같은 수준인 교육용 전기요금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광주시교육청과 학교들에 따르면 올해 광주지역에는 초등학교 105곳을 비롯해 중학교 61곳, 고등학교 47곳, 특수학교 4곳 등 모두 217곳에 사업비 651억원을 들여 현대식 냉·난방 시설이 설치되고 있다.

이미 냉·난방 시설이 갖춰진 65곳을 포함하면 광주지역 282개 모든 학교에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매월 학교당 50만~80만원에 이르는 추가 전기료 부담 때문에 일선 학교들이 에어컨 사용을 극도로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각 학교들은 전기료 등 공공요금의 구분없이 ‘표준 운영비’로 지원받고 있는데 에어컨 가동 등으로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경우 타 명목으로 책정된 운영비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전기요금은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등 계약종별로 구분돼 있으며, ‘교육용 전기요금(고압 A 선락 2 기준 kW/h 5천 200원)’은 ‘산업용 전기요금(5천 110원)’보다 약간 높다.

광주 A고교의 경우 연 2억 1천 400여만원의 표준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공공요금은 7천 900만원이며 전기요금은 4천 400여만원에 이를 정도다.

이미 에어컨이 설치돼 있는 광주지산중학교의 정희곤 교사는 “에어컨을 가동할 경우 추가 지출이 발생하며, 여름이 점점 길어지면서 에어컨 사용 일수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면서 “벌써부터 고온현상으로 에어컨을 틀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전기요금 때문에 학교 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의회 유재신 의원(민주·광산2)도 이날 열린 제179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수백억원을 들여 설치한 에어컨이 가동에 따른 추가 전기요금 때문에 장식용으로 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도 교육용 전기요금을 낮추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민주당 오세재 의원(청주흥덕갑)은 지난 4월 29일 교육용 전기요금을 낮춰 부과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안순일 광주시교육감은 “비싼 전기요금 때문에 아이들이 찜통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시 교육청도 전기요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전체 교육 예산이 빠져들게 정부가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전국 최초로 모든 초·중·고교에 냉·난방기를 설치해 찜통·냉방 교실을 없애기로 했다. 17일 문성중학교 본관 옥상에서 에어컨 실외기 공사가 한창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감사원 “광주·무안공항 통합 운영 바람직”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 재부각

감사원은 17일 국제선과 국내선을 분리해 운항하면서 수십억원의 적자와 손실이 이어지고 있는 광주공항과 무안국제공항을 통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광주공항의 국내선 이전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 문제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질 줄까지 않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한국공항공사 감사 결과에서 “무안공항 개항시 광주공항을 폐쇄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는데 광주공항 폐쇄를 합의하지 않은 채 무안공항을 개항해

무안공항은 개항 후 계속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흑자 운영 중이던 광주공항도 적자로 전환되는 등 경영 비효율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광주공항을 폐쇄하고 국내선과 국제선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는 시점을 광주시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결정하지 않은 채 국제선만 무안공항으로 이전, 운영함에 따라 두 공항 모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 조사결과 인접한 지역에 2개의 공항이 동시에 운영되면서 무안공항의 처리 능력이 1.3%에 불과해 개항 첫해인 ▲2007년 12억4천800만원 ▲2008년 71억3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광주공항도 2004~2007년 연평균 5억6천600만원의 이익을 냈지만, 무안공항 개항 이후 11억6천 5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이 모두 운영되는 바람에 두 공항 모두 손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내선만 운항함으로써 적자로 전환된 광주공항과, 애초 광주공항 폐쇄 뒤 무안공항 개항이라는 전제 조건대로 운영하지 못해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무안공항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 등 2개 공항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추진단 “별관 농성 강제철거 안한다”

### 5월단체 철수 여부 오늘 결정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이 5·18단체가 도청 별관 철거 반대하며 옛 전남도청에 설치한 농성장의 강제철거를 잠정 보류하겠다고 밝혀 5·18단체의 입장 변화가 주목된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추진단은 ‘10인 대책위원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농성장 강제철거를 ‘10인 대책위원회’의 활동 시한인 7월15일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이날 ‘10인 대책위’에 보

내 회신에서 “법원의 강제집행은 옛 도청 별관의 강제 철거가 아니고 공사를 방해하는 물건을 수거하고(5·18단체의) 건물 불법점유를 해제하는 조치”라며 “강제집행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법원의 고유권한이지만 10인 대책위원회의 뜻을 받아들여 7월15일까지는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법원에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18 유족회, 부상자회 등 대표들은 18일째 농성장 철수 여

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10인 대책위원회와 추진단이 별관 강제 철거 등 물리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농성을 해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5월 단체로부터 별관 문제의 전권을 위임받은 ‘5·18 사적지원형 보존을 위한 광주·전남 시도민 연대’는 이날 YMCA무진관에서 ‘옛 전남도청 문제 상생 공존의 해법-오월의 문’ 설명회를 가졌다. ‘오월의 문’은 별관 전체 건물을 보존하되 1, 2층 일부를 열어 터널식 입구를 만드는 안이다. /윤영기·김형호기자 penfoot@

## 親盧 진영 11월 신당 창당 추진

### 유시민 前 장관 주축

친노(親盧) 진영의 ‘신당 창당설’이 급부상하고 있어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일부 친노 인사들은 최근 여의도에 신당 추진 사무소를 개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당 창당에는 열린우리당 시절 친노 핵심으로 분류됐던 ‘참정연’ 인사들을 비롯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핵심 참모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당 창당의 중심에는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주목을 받고 있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

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노 전 대통령 49재 이후인 7월 중순께 ‘대국민 창당 제안’을 한 뒤 9월에 창당준비위원회 발족하고 11월에 신당을 창당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서갑원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49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신당 창당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

